

## 경북도,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최우수' 수상!

보건복지부 주관,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 선정

경북도는 18일 노인일자리 주간을 맞아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2022년 실적)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구미시가 대상, 청송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또 노인일자리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수행기관 평가에서는 포항시니어클럽 등 도내 16개 기관이 선정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도입된 노인일자리 유공자 표창에서는 포항시니어클럽 황영훈 관장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경북도는 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 보육시설지원 등 경륜을 갖춘 어르신들이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서비스형 부문과 노인생산물 판매 활성화에 위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지원 등 시장형 부문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경북도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도 도내 22개 시군에 소재한 60개 수행기관과 협력해 어르신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는 지역사회 환경정화 등 공익 활동형,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집 돌봄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이 공동 운영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니어 카페·유통사업단 운영 등 시장형 사업에 어르신 5만 4,208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거뒀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한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오랜 경험과 연륜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간담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 "우리 동포들에게 한일관계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간담회에 참석했다. 민단은 재일동포의 권익보호와 법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대표적 재일동포단체이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지향적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재일동포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민단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지난 3월, 도쿄에서 여건이 단장님과 우리 동포분들을 뵈었는데 오늘 서울에서 뵈게 되어 반갑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재일민단이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그동안 정부가 여러분들의 일본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제대로 도움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여름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 초기부터 외교안보 공약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정상화였다고 언급하며, 이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양국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즉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이제 정상화됐고, 과거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가까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만나서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튼튼하게 하기로 했다며, 안보, 경제, 과학기술 그리고 제3국 개발협력에서 협력해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국제사회에서 발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는 지난 3월 이후 여섯 차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일 협력해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동북아, 인태지역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평화를 지키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진전되면 우리 동포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여러분께서 경제, 사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선거 때 재외동포들께 약속드렸던 재외동포청이 지난 6월에 출범했다면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들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민단의 활동역시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여건이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지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방문 시 대통령의 원폭 피해 동포와의 만남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 단장은 대통령께서 과거의 역사를 극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문화 교류, 차세대 교류 등 모든 방면에서 교류를 더 심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우리 민단도 양국의 가교 역할을 더욱더 수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 참석한 한 단원은 재일동포가 3, 4세대를 지나 5세대까지 탄생하고 있어 재일동포사회가 우리 말은 물론 한일 양국의 풍습과 법률, 행정의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과 문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다른 단원은 일본 사회에서 여전히 조선인, 한국인에 대한 헤이트스피치(혐오 발언)와 인종 차별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근절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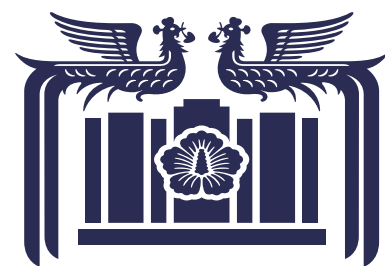
재일동포 체육진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힌 단원은 재일동포 유도 국가대표 선수를 언급하며,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 재일동포 청년들이 모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스포츠 교류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또 다른 단원은 먼저 80년대부터 청와대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 6번째로 발원 기회를 갖는 것이 이례적이라며 감사를 표하고, 관대해진 100주년 추도식을 우리 민단도 개최했지만, 현직 국회의원 윤미향 씨는 민단이 아닌 북한의 일본지부 격인 조총련 주최 행사에만 참석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동포사회에 대한 배신이며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실망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재일동포사회의 어려움을 잘 살피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민단이 역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단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단원들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등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대한민국 대통령실

## 전남도, 4월 저온피해 복구비 225억

1만 929농가 7천144ha 대상 농약대·대파대·생계비



속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시군별 피해 면적은 나주 1천734ha, 무안 1천297ha, 순천 640ha, 신안 558ha, 광양 457ha 등이다.

품목별로 양파 2천383ha, 배 2천95ha, 매실 916ha, 복숭아 398ha, 단감 308ha 등이다.

피해 농가는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농약대나 다시 씨를 뿌리는 비용인 대파대,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는다. 채소와 과수의 농약대 지원 단가는 ha당 250만원이다. 50% 이상 피해 시 지원하는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30만 원이다.

전남도는 이번 복구비 지급에 앞서 저온피해를 입은 4천587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237억 원을 지급했다.

박종배/기자

전라남도는 지난 4월 저온피해에 따른 피해 농가 복구비로 225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지난 4월 7일부터 3일간 기온이 영하 2°C 이하로 떨어져 과수 착과 불량, 양파 잎마름 등 저온 피해를 입은 1만 929농가 7천144ha에 대한 것으로, 이달 중 신

2023  
경북 영주

### YEONGJU PUNGGI GINSENG FESTIVAL

영주시  
YEONGJU CITY

# 풍기인삼축제

2023.10.07.토  
9일간 10.15.일

주최·주관 | 영주시·(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문 의 | (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054) 635-0020  
 www.ginsengfestival.co.kr



# 경북도의회, “다시는 침수 없다” 물막이판 설치 이끌어

##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지하주차장 18개소 물막이판 설치

경상북도의회가 제정한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폭우 시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지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빗물로 침수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는 간단한 침수방지시설만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로 판단되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경북 도내 재해위험개선지구 총 407개소 중 침수위험지역이 254개소로 62.41%에 달하는 상황에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

이 조례에 근거해 최근 경상북도는 재난관리기금 9,500만 원을 투입해 4개 시·군(김천, 안동, 구미, 영주)의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중 과거 침수피해 발생, 하천 인접 및 하천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 등 12단지 18개소에 침수방지 물막이판을 설치했다. 한편, 포함시

등 일부 시군은 자체재원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해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지난 7월 관내 저지대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을 설치한 김천시 재난담당 현동호 주무관은 “과거 집중호우 때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사례가 있어 폭우가 쏟아지면 직지천이 범람할까 주민들이 걱정해왔었는데, 이번에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뿌듯해 했다.

도민회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후 도내 시·군도 유사 조례 제정에 동참하고 있다. 포항, 경주, 예천 등 12개 시·군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으며 상주, 의성, 영덕 등 6개 시·군은 하반기 중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라며 “어떤 재난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데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의회,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법제화

## 정태숙·임말숙 의원 발의,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부산지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체육교육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도 관련 작업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18일) 제316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개정 중점방향에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 구축'이 포함되어 있고, '2023년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에는 체육활동 앱에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신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형 체육활동 운영 기반 구축'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어,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안은 지능정보화 시대 인공지능(AI), 자동화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 체육에 활용하고, 온오프라인 연계의 체육수업 환경을 구축하여 학교 스마트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매년 수립·시행, 학교 스마트체육 활

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스마트체육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태숙·임말숙 의원은 “정보화 기술 발달에 발맞추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가 필요하며, 감염병 확산과 환경적 요인 등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는 스마트 체육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온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성장과 발달을 도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지역특화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사업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건의

## 지역 맞춤형, 야간경관 특화형, 첨단기술기반형 등 다양한 유형의 국가지원 경관사업 제안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이 지역 경관특화를 통한 쇠퇴지역의 경쟁력회복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제출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이 지난 9월 18일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채택됐다.

이만규 의장은 “역사·문화자산 등 지역자산을 발굴하여 특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정책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후 기성시가지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에도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지금까지 경관사업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안건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장은 “관련 법령인 '경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관의 향상과 경관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지역마다의 특화된 경관의 형성과 노후한 생활환경개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관사업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는 '지역 맞춤형 경관개선사업', '야간경관 특화사업',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첨단기술기반 경관개선사업', '경관기록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의장은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

의안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비중있게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경관의 유사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경관특화사업의 발굴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경관정책의 추진, 그리고 경관사업의 첨단기술 활용 등 경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롯데리조트 부여(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는 총 17개 시·도 중 대전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의장이 참석했으며, 이 의장이 제출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과 함께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제18대 후반기 임원 선임의 건', '지방의회 전

위원회 제도 신설 건의안',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 개정 촉구 건의문' 등 19개의 안건을 상정·처리했다.

윤근수/기자



록 적극 소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환 의장은 “시의회 차원에서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적극 알리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도 평소처럼 국내 수산물 소비에 함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기환 의장은 이날 식당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의장은 서범수 국회의원에 이어 찰린지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북구청장 및 울주군수를 지명했다.

한편 다른 상임위원회(환경복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교육위원회)들도 회기 중 오찬 시 수산물 식사를 하는 등 수산물 이용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황규진/기자



# 울산시의회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적극 동참

## 김기환 의장,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참여

울산시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나섰다.

김기환 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공무원 등 10여 명은 7일 낮 12시 남구 옥동 소재 횡집에서 국내 수산물 안전

성 홍보 및 소비 촉진 캠페인을 했다.

이날 김기환 의장은 참석자들과 우리 수산물을 이용한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 횡집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수산물의 안전함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수산물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 홍국표 서울의원 발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발의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지난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통해 숙원과 제였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이 이루어졌지만, 지방

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한계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경우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있는 것은 당연하며, 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기능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므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제정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충청남도의회 기경위 “큰 비용 투입되는 대형사업 추진시 의회 협의 강화”

##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동의안 등 심의… 활발한 자료제출 및 협조 주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과 조례안, 동의안을 심의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와 관련 “지난 8일 산업경제실에 자료 요구한 사항의 답변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회의를 마치지 못하고 다른 날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까지 한 상황에서, 일부 출연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가 늦어 일주일이나 지나 자료가 제출됐다는 답변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료 협조도 잘되지 않는 기관에도 자료를 출연하는 것이 맞는지”라며 질책했다.

김석근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수소에너지 특구 사업은 10년 장기프로젝트로, 현재까지 50%가 지난 시점인데 매년 투입 금액이 74억 원”이라며 “전라북도도 R&D 사업 실증을 통해 인력과 장기적인 부분에 단계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차 전환 중 '블루수소', '그린수소'에 있어 중국이 세력을 펼치고 있어, R&D에 더욱 집중하여 기술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세수 확보가 전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기엔 민간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자부담을 더 확대하고,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도비를 조금 더 부담하는 등 매칭 비율의 조정이 가능한 사업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지은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과 관련 “3년간 13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9월 임시회 회기까지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큰 비용이 투자되는 사업이라면 공모 전에, 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라면 공모 후에도 의회와 공유해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편집국장:최재은·부회장:임성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112) 문화부:내선(116) 사회부:내선(113) 부동산부:내선(117) 경제부:내선(114) 오피니언부:내선(118) 광고국:1899.9659 스포츠부:내선(115) 지방부:내선(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힐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내년초부터 청소용역원 노임단가 즉각 인상돼야' 촉구

#### 환경부 가로청소 노임단가 생폐기준 적 이미 작년 11월 공문 시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8일 고양 상담소에서 고양시 각 구청 청소·경리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가로청소 용역원들의 노임단가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6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명재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심 가로청소 용역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동일 업종에 대한 지역별 임금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청소분야의 별도 노임단가 기준 마련을 위해 환경부에 건의해 줄 것을 촉구한 이후,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정담회를 주최한 명 의원은 "작년 11월에 이미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되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원가계산 산정 적용 기준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로 적용하여 일급 157,068원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노무종사원으로

로 84,618원을 지급한 경위가 무엇인가"며 "청소용역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의 장기화로 초래될 청소행정의 위기를 누가 책임 질 것인가"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가한 고양시 관계자는 "청소 용역원 임금 고시단가와 관련하여 환경부 공문이 작년 11월에 시행됐지만, 이미 청소업체와의 계약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단가 인상이 어려웠다"며 "내년 7월에 재계약되는 시점에서 상향 조정된 노임단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명 의원은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며 생활하는 청소용역원의 생존권을 중시한다면 재계약 운운하는 것은 한심한 소리"라며 내년 1월부터 즉각적인 시행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명 의원은 청소용역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2회째 추진하며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청소용역원의 차별적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 김동연, 주한 이스라엘 대사 만나 "반도체·방산·스타트업 등 협력 희망"

#### 김동연 지사, 18일 도청 방문한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면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키바 토르(Akiva Tor)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이스라엘 간 혁신산업 발전과 새싹기업(스타트업) 간 교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아키바 토르 이스라엘 대사와 만나 "이스라엘과 경기도는 새싹기업(스타트업), 청년 등 교류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방산,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에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과도 협력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키바 토르 대사는 "이스라엘은 제조업은 약하지만, 혁신 분야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반도체 클러스터 분야 협력을 하고 싶다"며 "말씀하신 모든 분야의 호혜적 협력을 위해 실무협의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공감 의사를 표했다.

아키바 토르 대사는 2020년 11월 주한 이스라엘 대사로 부임했으며, 이스라엘 외무부 세계교육국, 세계유대교국 국장, 주 샌프란시스코 이스라엘영사관 총

영사로 근무한 외교 전문가다.

이번 면담은 한-이스라엘 관계 및 경기도와 혁신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아키바 토르 대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열악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인적자원과 기술 개발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해 경제발전을 이뤘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시아 최초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발효돼 양국의 경제협력 기회가 확장되기도 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헬스케어, 핀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 중심 새싹기업이 발달한 국가로,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 전(前) 이스라엘 총리, 요즈마그를 이갈 에를리히(Yigal Erlich) 회장을 만나 경기도와 이스라엘 간 경제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도는 이번 만남으로 이스라엘과 경제, 기술, 인적교류 전반에 교류·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 시내버스 CNG 연료비 216억원은 중복지원' 지적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5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71회 임시회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 인건비·연료비 등을 고려해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데, CNG연료비 지원을 별도로 반영한 것은 중복지원"이라고 지적했다.

버스업계 CNG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은 국제유가 급등 및 정부 유가보조금 부족 등 CNG 연료비 가격 급등에 따른 안정적 버스 운행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215억 9,991만원을 편성한 신규사업이다.

최효숙 의원은 "2023년 본예산에서 유류비 지원을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NG 연료비 지원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추경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정이 다소 어렵

다"면서, "결국 CNG 연료비 지원은 명목만 다른 시내버스 지원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추경 편성 전 버스업계의 영업이익 현황을 조사한 후 영업이익에 따라 흑자인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와 구분해 정말 필요한 업체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라며, "앞서 작년 시내버스 파업 직전에도 임금인상분이 지급된 바 있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다른 명목으로 중복지원이 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버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CNG 가격 폭등으로 버스 운행중단 위기에 대해 결코 모르는 바가 아니다"면서, "다만 예산지원의 지속성이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추경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토론회 개최

#### 교육부 교권 강화 고시, 현장엔 턱없이 부족, 현장을 위한 구체적 매뉴얼 절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사노조와 함께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자리는 최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고시 개정과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고시 개정과 대책방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절박함에서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호동 의원은 좌장을 맡아 "교육부의 분리 방안 고시가 학교 현장에서

는 명확한 답이 되지 않고, 일부 학교에서는 문제 행동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유도하는 경향마저 있다"며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현석 팀장(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보호팀)은 발제를 통하여 "고시안은 문제 행동 유형에 따른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체계가 없다는 것과 학생 분리에 대한 통일된 안을 제시하지 않고 학칙으로 정하게끔 한 부분은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청소년의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기진단을 통한 조기

개입이 되지 않아 문제행동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이성일 교사(제주NLCS국제학교)는 국제학교의 경우 교사와 리더 그룹의 역할이 분명하고 경미한 사항은 담당 교사가 대응하지만, 심각한 사안은 교감이 즉각 대응하며, "학교 관리자의 가장 큰 역할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보호"라고 밝혔다.

엄민용 교장(공내중학교)은 개정 고시에 따른 공내중학교에서 학생 분리 조치방안을 마련한 경험을 소개했다.

한편, 김영신 전문상담교사(용인홍전고등학교)는 문제 행동에 대한 제지 방안과 치료적 지원방안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며, 첫째, 위탁교육을 위한 3차 안전망을 확대하여 초등학교 학생까지 포함하고 둘째, 학교 위기관리위원회의 결정된 심리치료나 위탁교육이 현재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며 위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 위(wee)센터의 전문적 자문과 지원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지구덕 원장(병원형 위센터 를루랄

라)은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중·고등 학생을 위한 윈스톱 지원 서비스를 설명하며, 최근 저연령 학생의 정신건강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대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영진 장학관은 국제학교 사례 등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모래 교육부와 해설서 작업에 참여하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과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교권보호 4법이 지난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 개정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기대감은 결코 높지 않다"며, "현장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기획위원회 김호성 의원, 이학수 부위원장,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 이용호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지역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의왕시 정담회 개최

#### 의정정책추진단·의왕지역 도의원, 의왕시와 머리 맞대고 11개 정책과제 살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8일 의왕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의왕지역 정책 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왕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인성교육 및 처우개선 ▲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 확대 ▲1인가구 안전지킴이 '스마트 안전 터치' 지원사업 추진 등 의왕지역 정책과제 11건과 관련, 도의회와 의왕시 간 협력을 통한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김영기 의원은 "동물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에서도 부족한 반려동물 문화공간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이 가족과 공동으로 생활할 주거공간 지원이 필요하다"며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 지원 및 사회적 적응 여건 조성을 위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옥순 의원은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높은 체육시설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힘써야 한다"며 "기존 시설들에 대한 안전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단장은 "의왕시 정책과제의 실현이 의왕시의 발전, 나아가 경기도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정책들이 그저 탁상공론에 그치



지 않도록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태길 단장은 "도의회가 시·군과 지역별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간 충실한 정책 가교 역할에 나선다면 경기도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에 함께한 김성제 시장은 "의왕시 주요 정책 현안들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며 "특히 지자체 간 마을버스 기

사 임금 격차로 인해 운전기사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며 마을버스 운송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난 악화 상황을 감안해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단장인 정윤경(민·군포1) 의원, 윤태길(국·함남1) 의원, 의왕시 지역구 의원인 김영기(국·의왕1), 서성란(국·함·의왕2), 김옥순(민·비례) 의원 및

김성제 시장, 김영수 부시장,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도시농업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가족아동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공원조성팀장 등 총 25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편,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시·군과의 정책발굴 정담회를 지속 운영하며,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범상/기자



# '제32회 수원시 그린농업축제' 23일 탑동시민농장에서 열린다

## '도농 화합의 장',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도농 화합의 장'인 제32회 수원시 그린농업축제가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탑동시민농장에서 열린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농촌지도자수원시연합회가 주관하는 그린농업축제는 화합마당, 참여마당, 나눔마당, 부대행사 등으로 이뤄진다. '화합마당'은 농악단의 길놀이와 수원시립공예단의 공연, 수원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농업인 표창,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천 결의대회, 장기자랑 등으로 진행된다. '참여마당'에서는 전시관과 체험관을 운영한다. 가정용 스마트농업관, 농생명과학관, 치유농업관, 친환경농자재관, 우리 밀 전시관, 소형 농기계관, 시

민농장 사진전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체험관에서는 밀 싹 심기, 우리쌀 꽃떡 만들기, 벼 탈곡, 떡메치기, 전통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나눔마당'은 수원로컬푸드직매장, 수원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으로 이뤄진다. 곤충체험, 작은동물원, 가을채소 심기 체험, 수공예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푸른시대 행복한 장날과 '찾아가는 반려동물 입양카페'도 운영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는 푸른시대 행복한 장날과 연계해 풍성한 볼거리, 체험 거리를 준비했다"며 "가족이 함께 축제를 찾아 농업과 농촌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안양시·시민연합·LG유플러스 '함께 손잡다'... 특고압선 지중선로 관련 협약

## 차폐판 설치·전자파 측정 및 관리 등 주민 우려 해소 방안 합의

안양시와 안전한안양시민연합, LG유플러스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이어져온 특고압선 지중선로의 갈등을 소통으로 풀어내며 함께 손을 잡았다. 최대호 안양시장, 김정아 안전한안양시민연합 대표, 이철훈 LG유플러스 전무(대리 참석)는 18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LG유플러스 특고압선 지중선로 공사 관련 주민 우려 해소 방안 협약식에 참석해 합의 사항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협약 입회자로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도 함께 했다.

이날 최대호 안양시장은 "10개월여 동안 시민 면담, 공익감사, 공청회, 합동 현장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와 시민, 기업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갈등 해소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은 물론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안양시 동안구에 제2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특고압선을 만안구와 동안구에 걸쳐 지중화 매설했다. 안전한안양시민연합은 특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안전성을 우려하며 지난 2022년 11월 안양시청 앞의 첫 집회를 시작으로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해왔다. 안양시는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시민이 청구한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건축 관련 특고압선 지중화 도로 굴착허가의 적법성 여부 등 감사원 공익감사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2월 시민 토론회, 5월 도로 전주소사 및 수차례의 시민 간담회 등을 추진했다. 신우용/기자

# 화성시, 화성 교육국제화특구 5개년 사업계획 수립



18일 화성시가 '교육국제화특구' 3기 지역으로 교육부 고시했다. 지난 7월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된 이후, 시는 교육부 컨설팅과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 8월 화성 교육국제화특구사업 5개년(2023~2027)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는 5개년 계획에 따라 화성시 초·중·고등학생 및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향후 5년 간 총예산 182억 5천6백만원의 틀어, ▲교육국제화 기반 조성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어울림의 3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화성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는 2024년부터 100여 명의 화성시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 해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문화조성을 위한 영어특화

작은도서관 등 시립도서관에서는 영어 및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교육자원 연계 사업을 통해 지역 정부의 식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유관기관인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한 원어민 외국어 교육지원과 국제화 교육을 이끄는 선도 교원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023년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은 화성시가 교육국제화를 위한 우수한 요건을 갖춘 도시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시 청소년들이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2023년 고양특례시 청년의 날 'GOMZ(GOyang MZ) day' 행사 성황리에 개최

고양특례시는 지난 9월 16일 고양아람누리 해밭이더에서 2023년 청년의 날(GOMZ 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행사시작 시간인 오후 4시부터 고양버스커즈 6팀의 '청년 버스킹'이 있었는데, 신나는 음악과 함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며 광장을 지나는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된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는 고양특례시장,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고양시 주요 청년 단체들이 참석하여 '청년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해주는 자리가 됐는데, 이날엔 청년활동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전달과 청년대표의 인사말이 있었다. 기념식 이후에는 고양아람누리 생활문화센터에서 탐험가 '제임스 후퍼(James Hooper)'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에 대한 강

연이 진행됐다. 이번 강연은 사전접수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시민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시민은 "최연소 에베레스트 등반자이자 유명 탐험가인 제임스 후퍼의 강연을 듣게 되어 큰 힘을 얻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외에도 행사장에서는 저녁 9시까지 '고양 청년 플라마켓'이 개최됐는데, 청년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판매 부스를 운영하고, 퍼스널컬러, MBTI, 메이커스페이스 체험 부스도 운영하여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야외에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고양특례시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 안산시,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 수상... 'RE100추진' 모범

안산시는 '2023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에서 안산정수장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추진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 환경부 주관으로 안산정수장 침전지상부에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상하수도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한 태양광발전소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RE100을 추진하기 위해 안산정수장 태양광발전소와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대해 오는 2030년까

지 사용전력의 3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오는 2035년 70%, 2040년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해 수질 관리에 필요한 스마트물관리시스템 사업에 지난 2020년부터 총 131억 원을 투자해 국가정책 참여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및 환경경영인증 'ISO14001'을 획득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공공행사 음용수로 활용하는 '상록수' 병입을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페트병에서 종이팩으로 교체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기후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친환경·저탄소 정책개발 및 실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성남시, 추석 명절 물가 안정 총력...20개 품목 가격 공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점검 (분야별정보→경제→장바구니 물가)에 공표한다. 추석 물가 증점 관리품목 점검을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시민들이 손쉽게 가격을 비교해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는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 관계 부서와 소비자 단체, 축산물 감시원 등으로 꾸려진 3개 반 11명의 합동점검반이 감시활동을 벌인다.

합동점검반은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점 등을 돌며 가격표시제 미이행,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 표시, 표시요금 초과 징수, 사재기, 담합 행위 등을 점검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 위원회에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성수품 가격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현장 가격 점검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시민들이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용인특례시 소비재 기업 참여 북미시장개척단 18억원 상당 계약 추진

## 캐나다 밴쿠버·미국 LA서 비즈니스 상담 진행...바이어 매칭 등 시 차원 지원 받아



용인특례시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지역 중소기업 6곳이 참가한 미국 LA와 캐나다 밴쿠버 시장개척단이 134만 달러(약 17억 8000만원) 규모의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코로나 이후 용인특례시에서 주관한 첫 번째 북미 시장 진출사업이다.

이번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기업은 작업용 장갑 제조기업 '㈜리오펜니', 유기복합비료 등을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에프디파이브', 전통술을 만드는 농업회사법인 '(주)술샘', 원목 디퓨저홀더 등을 만드는 '(주)그립인', ICT 학습교구 개발기업 '(주)크레아큐브', 다기능 방충망 제조업체 '나이스인디아' 등 6개 사다.

시장개척단은 미국 LA에서 21건 228만 달러(약 30억 3000만원), 캐나다 밴쿠버에서 21건 50만 달러(약 6억 7000만원) 상당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고, 각각 118만 달러(20건, 약 15억 7000만원), 15만 달러(18건, 약 2억원) 상당의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주)술샘은 현지 캐나다 바이어와 2만

달러(약 2700만원) 상당, (주)그립인은 4500달러(약 600만원) 상당의 현장 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업체들도 계약 체결을 위한 후속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참가기업들을 위해 지난 7월 시 언택트 수출상담회를 통해 사전 수출 상담을 지원했다. 용인특례시 수출 멘토들도 이들 6개사를 방문해 해외 파견 전 컨설팅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각 기업에 1인당 항공료(50%), 통·번역 인력, 바이어 매칭, 시장성 조사 등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지역 기업들의 북미 시장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지역 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광주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극복의 날 캠페인 추진

광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7일 청석공원에서 제16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시민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만드는 치매 친화 사회'라는 슬로건으로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센터는 △예코백 만들기 △치매 예방수칙 퍼즐 맞추기 △치매 정보 OX 퀴즈 △소원 나무-희망 메시지 작성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했다.

특히, 치매 극복 선도단체인 동원대학교와 한국치매예방교육센터에서 자원봉사자 캠페인에 동참해 더 뜻깊은 행사가 됐다.

이와 함께 시는 18일부터 7일간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비대면 걷기 챌린지, 치매 파트너 사업 홍보 등을 추진한다.

걷기 챌린지는 워크온을 통해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매일 9천210보를 달성한 사람 중 333명을 추첨해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 SNS, 워크온 등을 활용해 치매 파트너 홍보 및 가입자를 확대 양성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에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설치한 후 '광주시 워킹투게더'에 가입하고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 챌린지에 참여하기를 누르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치매 극복의 날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광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 정원에서 일상 속 평화 누린 '제3회 광명시 평화주간' 성료

대규모 숙박시설 건설로 관광객 1천만 시09월 13~17일 광명시 평화주간 개최... 17일 미술대회 시상식 끝으로 막 내려대 도약

광명시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한 '2023 광명시 평화주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광명시 평화주간은 지난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4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한 평화도시 광명포럼, 15일과 16일 평화영화제, 16~17일 평화정원 피크닉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많은 시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누렸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평화주간 주제는 탄소중립과 정원문화를 통해 일상 속 평화를 함께 누리보자는 것"이라며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이 많은 도시, 평화가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광명의 꿈이며 시민의 꿈"이라며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탄소중립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동안 평화정원피크닉장에 마련된 탄소중립 체험존, 사회적기업 참여부스, 광명시 정책홍보 부스 등 다양한 체험형 부스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특별행사로 마련된 평화

주간 영화제, 꼬마정원사, 평화비빔밥, 평화정원 북크닉도 호응을 얻었다.

특히 평화비빔밥 행사에는 3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탄소중립의 의미를 담은 채소 비빔밥을 함께 비비고 나누며 평화주간에 의미를 더했다.

평화비빔밥 행사에 참여한 최민 경기도의원은 "광명시는 평화주간을 치르고 있는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도시이며, 소망을 잃지 않는 도시"라며 "청소년들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중요성과 가치를 이런 문화생활을 통해 알리는 귀한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평화주간의 마지막은 제3회 평화 미술대회 시상식이 장식했다. 안양천 평화정원피크닉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대상(광명시장상) 5명, 최우수상(교육장상) 6명, 우수상(광명시의회 의장상) 12명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용민/기자



# 인천시, 운북환경공단 인근 철책 0.7km 철거해 해안 경관 확보

## 가시형 철조망 철책 대체시설 설치 후 미관펜스로 교체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환경공단사업소 인근 해안 도로변에 미관을 저해하는 가시형 철조망 철책 700m를 철거하고 미관펜스로 교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인천시는 육군 제17보병사단과 '해안 군부대 경계 철책 철거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해안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 사업은 국방부의 '국방개혁 2.0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과제에 따라 접경지역인 강화·옹진을 제외한 철책 67km를 단계적으로 지역 군부대와 협의해 철거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철책 67km 중 존치 결정(20km)과 추진 완료(21km)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철책 26km에 대해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7km는 군부대와 협의 완료해 철거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19km는 당시 합의각서를 통해 철거내용에 합의했다.

인천시는 합의각서 체결 이후 1단계로 운북사업소 운북환경공단사업소 인근 가시형 철조망 철책 700m를 철거했다.

이 구간에는 내륙과 해안을 비추는 양방향 가로등 14개와 전기·통신 선로 이설, 보강 등의 대체 시설을 설치한 후, 가시형 철조망 형태의 철책을 미관펜스(높이 1.2m)로 교체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투입됐다.

인천시는 앞으로 2단계 삼목항 ~ 해안북로 수문, 3단계로 안암유수지 철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체시설을 조성하고 철거할 계획이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가시형 철조망 형태의 철책을 우선 철거하고 해안 돌레길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해 시민들이 좀 더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예천군 우수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 예천장터

예천 사과

물 좋기로 소문난

# 醴泉

鳳凰, 非醴泉不飲(莊子)  
봉황은 예천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장자)

단술 예 샘천

예천 참기름

예천 한우

예천장터

검색창에서 예천장터를 검색하세요!

주문 및 상담안내 : 054)650-6280

<http://www.ycjang.kr>



# 전남도 김영록 지사, "진도, 남부권 광역관광 사업 힘껏 추진"

## 도민과의 대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거점 도약"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높은 매력력을 지닌 진도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힘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후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희수 진도군수, 장영우 진도군의회 의장, 김인정 전남도의원, 오미선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선 진도소방서장, 이기암 노인회장 등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보배의 섬 진도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256개의 섬과 바다, 유서 깊은 역사·문화유산 등 매력 넘치는 관광자원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남도 애향의 본고장인 진도는 청정한 자연 속에서 격조 높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도시"라고 진도의 매력과 풍부한 자원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인문치유 관광 루트 명소화와 세방나초 아트문화 관광 명소 조성사업 등이 반영돼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의 거점 도약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난 7월 야심차게 추진하는 진도산해도경 사업이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



됐다"며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도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진도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수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진도군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선정된 공모 사업을 살펴본 결과 200억 원에서 600억 원 등 매년 40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며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90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연말까지 1천200억 원 상당의 공모 사업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날 진도군은 지역 내 대표 명소로 이용객을 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한 온림산별초공원(한국체육관)의 개선을 위한 도비 5억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5억 원 지원을 약속했다.

김영록 지사는 "공모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을 접목시킨 진도만의 명품 랜드마크를 조성토록 추진할 것"이라며 "진도가 '신해안·문화관광·친환경수도, 전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진도 쓸비치가 성공한 것이 큰 도움이 돼 앞으로 명품 리조트를 유치하는데 자신감이 생겼다"며 "진도가 남해안의 거점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군민들의 건의도 잇따랐다. 박을수 고군면 오산마을 이장은 오산들녘 용·배수로 개보수를, 김주명 조도대교 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숙원 사업인 신조도대교 건설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전북 양식어가 출하보전금 지급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확대 ▲진도군 지방어항 승격 ▲군내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신조도대교 건설은 군민의 한결같은 염원으로 대선 지역 공약에 반영된 사항인 만큼 심의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군내천은 전남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반영돼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종배/기자

# 2023 청년의 날 행사도, 순천은 역시 달랐다

## 16일 우천에도 순천만국가정원과 청년이 어우러진 '청년이라 좋은 날' 성료

순천시는 지난 16일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2023년 순천 청년의 날'에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타 지자체가 우천으로 인해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순천시에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천 대책을 마련해 호우주의보 발령에도 기존 조례호수공원에서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로 행사장을 옮겨 행사가 잘차게 진행됐다.

행사 당일 풍성한 즐길거리가 마련된 청년의 날 기념행사장으로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과 시민들이 찾아오면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 청년의 날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한 순천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청년이라 좋은 날'을 주제로 기념식, 지역 청년들의 축하공연, 청년가족 세대연결프로그램, 외국인청년퀴즈대회는 물론, 순천 청년이 걸은 역사와 활동 사항을 알리는 전시존, 창업 청년들의 홍보 공간인 청년창업존,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체험공간, 취업과 창업 관련 홍보공간, 청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 등 즐길거리로 가득 채웠다.

이번 청년의 날은 지역 청년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순천에서 생활하는 외국인퀴즈대회 '유(학성)퀴즈동맹', 청년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청년가족 세대연결프로그램 '가족공간' 등 다른 지자체의 정형화된 프로그램과는 달리 지역의 다양한 청년 구성원이 함께 모여 즐기는 자리가 되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또한,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과 관련해 최근 순천에 투자를 결정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순천의 중견기업인 '(주)파우린쇄전자'에서 직접 부스를 운영해 청년들에게 기업채용 정보와 면접 방법 등을 컨설팅했으며, 지역 소재 3개

대학의 일자리 연계 학과와 특성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축하공연에서도 유명인을 초대하는 등 행사와 달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만의 구성된 공연팀에게만 무대를 내어 주는 과감한 선택을 해 참여자들부터 호응을 받았으며, 순천시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시민(다시청년)들의 인터뷰로 제작한 영상 '다시청년이 지금청년에게'를 상영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할 예정이다.

순천시의 청년의 날 비전선포 모습도 달랐다. 순천의 주력산업을 포함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섯명의 청년들과 함께 직업을 상징하는 물건과 청년을 매칭하는 직업맞추기 게임형식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후 청년정책의 분야가 적힌 젠가를 하나하나 쌓아 "일류순천! 누구나 청년! 순천, 청년을 잇다"라는 비전을 표출했다.

순천시는 ▲18일 오후 6시 30분 장천노랑극장에서 순천시청년정책협의체 주관 청년주도 담론회 '그래서 순천', ▲19일 오후 3시 브루스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CBS가 공동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in 전남 - 나 혼자 안 산다' ▲21일 오후 3시 순천시청년센터에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공유회' ▲22일 오후 5시 낙안면 맥가이버 공영대장간에서는 '청년희망 아카데미' ▲27일까지 천(天)개의 아이디어도 진행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오늘은 진정한 청년이 주인공인 청년의 날 행사를 만들고자 노력했으니 함께 즐겼으면 한다"라며 "청년들이 바라는 것에 대한 설문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힘내라는 격려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 남원시, 전라북도 주관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건강한 다문화가족 육성사업 공모 선정

남원시는 2023년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사업 '더불어 사는 어울림 사회' 분야에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건강한 다문화가족 육성사업"과제가 선정되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사업은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현안 문제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 7월초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건강한 다문화가족 육성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후 8월말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전주대학교와 컨소시엄을 통해 연간 총사업비 100백만원(도비 70백만원, 시비 30백만원) 규모로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건강한 다문화가족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다문화 청소년 인재양성과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남원 시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체계 구축을 목표로 다문화 글로벌 집중캠프 운영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을 향상 시키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 지

원으로 학력인구 감소를 막고 인구소멸 등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건강한 다문화가족 육성사업은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과 갈등보다 서로간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민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연계·협력하여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함평군, 농업재해 피해 농가 복구비 11억 920만원 지원



전남 함평군이 올해 봄 이상저온,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복구비 11억 9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4월 중순 개화기 저온 피해를 입은 과수와 서리 피해를 입은 일반작물 37.8ha, 5월 수확기 도복 피해를 입은 맥류 114.2ha, 생육기 저온 및 고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파 292.ha이다.

피해 농가는 피해 규모 및 정도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등을 비롯한 직접 지원과 농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학자

금 지원 등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농약대 지원단가는 ▲맥류는 ha당 74만원, ▲과수는 ha당 249만원, ▲채소류는 240만원이며, 대파대 지원단가는 맥류는 ha당 380만원, 채소류는 586만원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신속한 복구비 지원으로 피해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 농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완도해경, 신입직원 "온보딩 간담회" 열GO, 소통海

## 조직 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지휘관과 자유로운 대화와 동료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입사 3년 미만 경찰서 및 파출소·함정 직원 대상으로 소통 온보딩(On-boarding)간담회를 개최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기존 정형화된 분위기를 벗어나, 일상생활 속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소통과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3년 미만 신입 직원 16명이 참석했으며,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직장 내 적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상호 존중과 더불어 소통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신입직원 간 소통시간 마련으로 세대 간 이해도 증진 및 상호 공감대 형성의 시간을 가지고, 유증운전 등 고비난성 주요 비위 예방도 강조했다.

직원 김 모(34세) 순경은 "지휘관인 서장님과 편만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소통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 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조직문화가 발맞추 수직적이고 딱딱한 분위기를 탈피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영울/기자



# 나주시, 장기요양 부당청구 예방 및 지도점검 사례 교육

## 장기요양기관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 예산 투명 집행 중점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나주시장애인연합회관에서 장기요양 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예방 및 지도점검 사례 교육'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기요양기관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확보와 장기요양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이경은 과장의 장기요양 부당청구 예방 교육과 나주시 송덕희 복지시설팀장의 지도점검 사례 교육으로 진행됐다.

나주시는 매년 장기요양기관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요양기관 76개소를 지도·점검했으며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집으로 발간·배부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기관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장기요양급여 허위·부당 청구 사례 상당수가 관계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관련 지침이나 기준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로 빈번한 부당 청구 적발 사례와 변경된 세부 규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부당 운영 사례가 줄어들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적절하게 지출되어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 구례군, '2023년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전남 구례군은 9월 14일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구례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2023년 인구교육 추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구교육 추진 지원사업은 인구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양질의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구본진 기획홍보실장이 강사로 나서 '인구변화의 이해와 미래 준비'라는 주제로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문제를 짚어보고 공직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했다.

김순호 군수는 "인구변화는 시책 추진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인구교육을 진행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 목포시, 2023년도 목포시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

#### 체육부문 목포시체육회 박철수 전)상임부회장 선정

2023년도 목포시 시민의 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목포시는 지난 7월 12일~8월 31일 공개 모집한 시민의 상 후보자에 대해 18일 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체육 부문에 목포시체육회 박철수 전)상임부회장(現 재)보해장학재단 이사장)을 2023년도 목포시 시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전 유치에 성공하며 목포시 체육 발전을 한발 더 앞당겼다.

목포 시민의 상은 오는 25일 제61회 목포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박종배/기자



### 신안 지도향교, 공기 2574년 추기 석전대제 봉행

#### 126년간 이어진 전통 유교문화유산의 산실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에 있는 지도향교에서 지난 9월 16일(음력 8월 2일)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석전대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첫 번째 정일(丁日)에 공자를 비롯하여 문묘에 배향된 선현들을 모시는 제사로, 성군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향교에서 일제히 봉행하는 의식이다. 지도향교는 공자를 포함한 중국의 5성(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과 주돈이, 정호, 정이, 주희 등 중국 송나라 4명의 현인과 우리나라의 18명 현인에게 술잔을 올리는 분헌례, 제수 음식을

음복하는 음복례, 축문을 불사르고 제례를 마무리하는 망예례 순이다.

이번 추기 석전대제에는 초헌관으로 김재광 신안군 부군수, 아헌관으로 김대성 지도파출소장, 종헌관으로 임연혁 유림이 참여해 엄숙한 분위기에서 예를 갖춰 제사를 올리며 신안군의 평안을 기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석전대제를 준비한 지도향교 유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전통문화 보전이 어려워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전통 유교문화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도향교는 '일군일교(一郡一校)' 원칙에 따라 1897년에 설립된 조선시대 마지막 향교이다. 제향 공간인 대성전과 강학 공간인 명륜당, 양사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4년 전라남도 문화재자료에 지정됐다.

김영진/기자



## 전북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이차전지 산업 육성 본격화

### 도·한국과학기술연구원·(재)전북테크노파크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위한 간담

전북도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재)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이차전지 등 전북 미래 신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1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본원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을 비롯해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연구원 주요 임원과 연구진, 도 이차전지반도체팀이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열고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월 24일 전북도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맺은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구축 협약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연구 센터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도는 새만금 지역 내 이차전지 기업 등 초격차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입주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북을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필수적인 기술 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 양성의 고도화가 절대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에 집적된 역량을 갖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조력을 받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협약을 이끌어 내고 필요한 전략을 찾아나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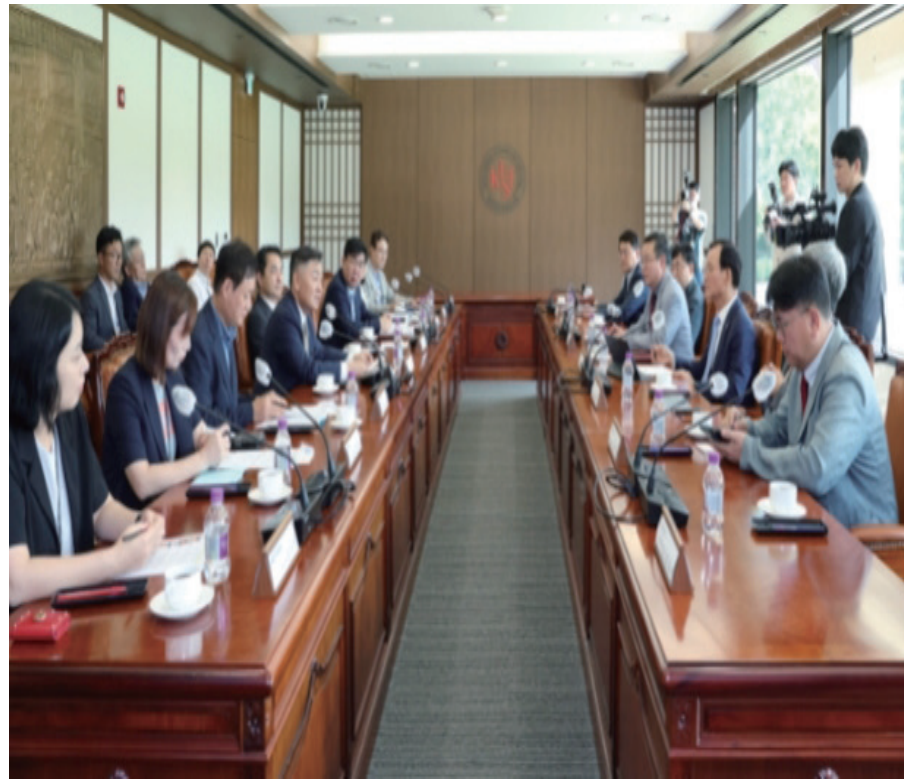
연구원측에서도 이날 윤 원장을 비롯해 연구기획조정본부장과 청정신기술연구본부장, 에너지저장연구센터장, 연구진들을 대거 참여시키며 기술역량 강화에 강한 협업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 등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센터 구축 방안 △새만금 입주기업 및 전북 주요기업 대상 세계적인 인력 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오갔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내 미래이동수단용 차세대 리튬전고체전지 기술, 대용량 전력저장용 차세대 소용량 온전기 기술 등 초격차 기술 개발 연구현장에서 설계 및 공정 과정도 살피며 혁신기술의 미래 방향성도 내다봤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가속도를 붙이고 5대 상용화 핵심센터 관련 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 부처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현장 방문을 통해 전북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연구 방향을 논의하게 돼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조성은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작점이자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다. 앞으로도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전북의 혁신연구 역량을 배가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 "앞으로 이차전지 등 전북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연구

교류, 세계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해 전북이 국가첨단 전략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남출/기자

## 진도군,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추천·접수

### 교육·관광·복지 등 5개 부문...10월 4일까지 신청·접수

진도군이 지역을 빛낸 군민의 상 후보자를 추천·접수 받는다.

군은 오는 11월 1일 개최되는 제48회 진도군민의 날을 맞아 '진도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를 오는 10월 4일(수)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개발과 복리증진에 기여해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개인 또는 단체이다.

이번 군민의 상은 ▲공공복리 ▲교육·체육 ▲관광·문화예술 ▲복지·환경 ▲지역개발 등 5개 부문으로 부문별 1명씩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오는 10월 중 엄중한 선정 절차를 거쳐 '군민의 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제48회 진도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자는 읍·면장과 기관·단체의 장이며,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서류는 읍·면에서 교부받거나 진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갖춰 진도군 총무과 서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도군 총무과 관계자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화합 등의 공적으로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개인과 단체 등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민의 상은 군의 명예를 선양했거나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사람에게 시상하며, 역대 수상자는 지난해 수상한 허정무 대전시티즌 이사장과 독립운동가故박종협옹을 포함해 총 29명이다.

김영진/기자



## 화순군, (주)디에스푸드몰 조요한 대표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

축산물직거래 쇼핑몰인 (주)디에스푸드몰을 조요한 대표가 15일 화순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 기부금 개인 최고액인 500만 원을 전달했다.

조요한 대표는 "현재 화순군이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축산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화순군은 광주와 인접해 있어 바쁜 도심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힐링과 휴식을 주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화

순군이 보유한 자연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구복규 화순군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순군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신 조요한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축산 농가의 땅이 헛되지 않도록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 8월 고향사랑기부금 담례품 공개모집을 통해 11개 담례품을 추가했으며, 2024년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10월 6일까지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 중이다.

윤경호/기자



## 빛나는 6070대학, 강진목은지 담그기 과정 운영

### 강진군, 일자리 창출까지 척척

대학'은 60세에서 70세 초반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 역량강화 과정, 생활요리교실 등 취미·여가 과정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에 강진목은지 담그기 과정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도자기 공예 과정 등 다양한 소득연계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추윤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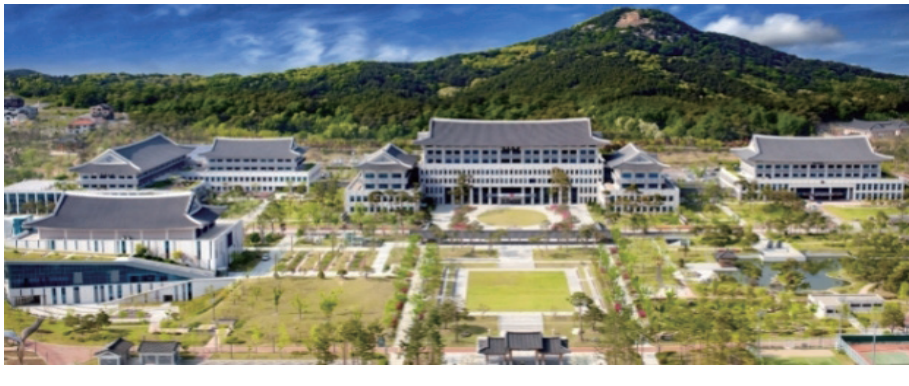




# 경북도, 영유아를 위한 새로운 돌봄·보육 정책 추진

## 내년도 신규시책 '영유아 비인지 역량 강화센터 운영'

경북도는 영유아를 위한 내년도 새로운 돌봄·보육 정책으로 영유아 비인지 역량 강화센터 운영, 놀이를 통한 돌봄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이터, 경북형 클린 보육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관리시스템(회계 등) 도입 등 신규시책을 추진한다. 최근 학교폭력과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영유아의 뇌 발달 등 비인지 역량에 대한 조기 개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 비인지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한다.



교육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신병리학적 치료 접근을 통해 영유아의 비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경북도는 광역단체 중 지리적으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간 여러 가지 격차 문제가 공존하고 있어 인간의 생애주기 과정에서 최초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기의 보육 환경에 대한 격차는 결코 방관할 수 없는

최우선의 해결 과제가 됐다.

최근 대한민국 보육의 가장 큰 화두인 '놀이'를 통한 돌봄에 발맞춰 팝업 놀이터를 활용한 돌봄 프로그램에 집중해 소외지역 아동들에게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놀이터' 사업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하고 놀이공간이 필요한 아동에게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지원해 놀면서 자

라는 경상북도 아이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의 양적·물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양적인 지원을 넘어 질적인 차원의 관리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회계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운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 경북형 클린 보육체계를 구축해 표준화된 관리시스템(회계 등)을 도입·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 업무를 간소화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은정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한층 더 질 높은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는 경북도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경주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로 지역상권 살린다

##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부서별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장보기 행사 가져

경주시가 추석을 맞아 명절맞이 실속 장보기로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청 공직자들과 유관단체 직원들이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전통시장을 비롯한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 넣어 고물가 속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는 봉천 부서별로 중앙·성동시장에서 실시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부서는 봉황·북동 등 중심상가 위주로 실시한다.

또 사업소와 읍면동은 18일부터 27일까지 부서별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시는 유관기관과 자생단체도 장보기 행사 및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활성화 캠페인에 동참시킬 예정이다.

경주시는 9월 한 달 동안 경주페이 캐시백 혜택 한도를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조정하고, 캐시백 지급률은 현행대로 10%를 유지한다.

또 10월부터 연말까지는 한도를 70만원으로 높이고 캐시백 지급률은 7%로 낮춘다.

더불어 전통시장 등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도 다음달 6일까지 확대한다. 지역형은 130만원 구매 한도 내 5% 할인,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은 180만원 구매 한도 내 10% 할인된다.

주낙영 시장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어려운 가계상황에 저렴한 가격과 넉넉한 인심, 향상된 서비스로 맞이하는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가에서 명절 장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낙영 시장은 오는 25일 성동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면서 상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윤태용/기자

# 부산시, '중앙-부산 청년정책 소통·교류회' 개최

## 9.19. 13:00 청년두드림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

부산시는 오늘(19일) 오후 1시 청년두드림센터 대회의실에서 '중앙-부산 청년정책 소통·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2023 부산청년주간' 행사와 연계해 중앙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과 부산 청년들이 만나 교류의 시간을 갖고 향후 청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부산청년주간'은 청년 이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년이 다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올해는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국단위 행사로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지난 9월 14일 청년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9월 20일까지 해운대, 서면, 부산청년센터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교류회에는 정부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중앙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과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 지역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청년 의견 수렴방안 ▲지방시

대를 위한 청년의 역할 ▲향후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교류회 참가자들은 부산시 청년두드림센터 공간을 둘러본 다음, 서면 상상마당 앞으로 자리를 옮겨 이곳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청년단체 부스를 체험하고, 미니 콘서트 등을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남정은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이번 교류회를 통해 중앙과 부산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중앙과 지역의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 영덕군, 영덕군지 편찬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영덕군은 지난 15일 영덕군지 편찬위원회 12명을 위촉하고 편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영덕군지 편찬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라 영덕문화원이 수행기관의 역할을 하고 편찬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두기 영덕문화원장의 주도하에 전체적인 방향과 운영방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제정된 영덕군지 편찬위원회 규정에 따라 군지의 편찬 방향을 결정하고 자료 범위·편제 및 목차 결정, 자료 심사 및 검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편찬안은 입찰을 통해 용역으로 제작되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보완·수정할 계획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편찬위원회에서 20년 전에 제작된 군지 자료를 재검토하

고 재평가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정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덕군지는 후대까지 길이 전해지는 지역의 문화유산인 만큼 편찬위원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 대구 북구, 2023년 '치매 극복주간 행사' 개최

대구 북구치매안심센터는 9월 21일 제16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치매 극복주간으로 정하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만드는 치매친화사회'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치매 극복주간 행사는 △치매 극복 SNS 이벤트 △치매인식개선 영화 상영 △치매관리 주민건강강좌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채롭게 진행되며 북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치매극복 SNS 이벤트'는 치매극복 4행시 짓기,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응원 댓글 달기로 진행된다. 우수작은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9월 20일 오후 2시 구수산 도서관에서 '치매인식개선 영화 상영'과 9월 21일(목) 오후 2시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치매관리 주민건강강좌'가 진행되며, 우리 구 12개 치매안심마를 행정복지센터에

서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이 실시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북구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숙 보건소장은 "치매 극복주간을 맞이하여 북구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지역 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 청송군, 신규사업 발굴로 도약하는 청송 완성!

##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청송군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윤경희 군수 주재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청송군의 도약과 군민의 삶에 변화를 불러올 2024년 중점 추진 사업의 타당성과 방향성 검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청송군은 기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2024년도에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 비

윤은 좋고 소득은 늘어나는 생산체계 구축 및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군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원 미세살수 장치 지원 사업'과 '꼭지 무절단 청송사과 유통'을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 적극 추진한다. 또한 인구 유입을 늘리는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 빌리지 건립', 관광객 유치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이색숙박 시설(청송사과 주제 가족호텔) 조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행정이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주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국제 수입 저조에 따라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효율적 재정 운영과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로 군민과의 약속인 민선 8기 역점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영양 명성약국 지역사랑 기부활동

##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영양분관 방문해 후원금 기탁

영양명성약국이 지역사랑을 위한 기부활동을 통해 귀감이 되고 있다.

영양명성약국은 9월 18일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영양분관을 방문하여 후원금(200만원)을 전달했다. 매월 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기탁, 영양군립요양원 기부금 기탁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 및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내

어려움이 있는 복지사각지대 장애인들을 위해 기부의사를 전했다.

이번 기부는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선제적인 기부활동으로 소외되고 쓸쓸한 명절을 보낼 영양군 내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잃지 않는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영 약사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웃을 돌보고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는 군

윤근수/기자



# 안동시, 2024년 재해예방사업 경북 도내 최대규모 국비 확보

안동시가 2024년 행정안전부 재해예방 국비 지원 신규사업 2건에 선정돼 총사업비 87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풍수해생물권 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건의 재해예방사업이다.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태풍·가뭄 등 자연 재난에 대응해 재해발생 우려가 큰 지역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경북 도내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의 국비예산을 확보

하게 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안동시가 재해예방사업으로 집행한 연평균 신규사업비(140억 원)보다 6배 이상(731억 원) 늘어난 규모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용상지구 풍수해생물권 정비사업은 2024년 14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450억 원으로 배수펌프장 1개소, 관로 확장 및 신설(연장 1,915m), 세천 정비(연장 100m), 사방댐 3개소, 고지배수로(연장 915m) 정비 등 용상동 일원의 위험 요소를 정비한다.

또한, 가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4년 18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21억 2,600만 원으로 교량 재가설 1개소, 하천축제(연장 2,422m), 제방도로(연장 1,805m)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권기창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재해 없는 안동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재해 취약지구를 신규 발굴하고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울진군, 수산물 월요 미식회의로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 보탠다

울진군은 지난 18일 후포수협 회의실에서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월요 미식회의(현장 간부회의)를 가졌다.

수산물 월요 미식회의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군청에서 매주 월요일 하던 간부회의 장소와 시간을 변경하여, 현장에서 간부회의 후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오찬을 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죽변에서의 높은 호응과 관심에 이어, 군수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및 후포수협, 어업인 대표 등은 이날 현장 간부회의를 마치고 회 초밥과 무침회 등 다양한 지역 수산물로 이루어진 점심 식사와 함께 수산물 판매 동향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며 지역 어업인과 수산물 상가 회

원을 격려했다.

손병복 군수는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를 통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함께 지속적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쓰고, 유가 상승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수산업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은 수산물 소비 촉진 계획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33회 경북도민 생활체육 대축전' 개막식에 울진군의 신선 수산물 홍보와 함께 한 컵 물회 무료 시식 행사를 준비 중이며, 경영난 해소를 위한 어업 분야 지원 확대 등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 수산업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장문화/기자



## 경북도, 글로벌 메타버스 허브로 도약!

### 2024년 지역 주력산업 연계 산업특화형 메타버스 신규사업 추진



경상북도가 글로벌 메타버스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수립한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에 담긴 추진 과제 이행과 함께 권역별 강점을 활용한 특화형 신규시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기본계획 발표 후 5대 거점 중심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힘써 왔다. 그 결과 메타버스랩 선정, 디지털 마이스터고 지정, 메타버스 노마드, 디지털 물류 실증지원,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허브 사업 등 국비 220억 원을 확보했다.

▲(산업) 경북을 글로벌 메타버스 허

브로 조성에 나간다. 도내 기업에 지능형 제조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디지털 트윈 혁신서비스 선도 제조산업 실증'공모 및 기업 공정·경영·유통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전사적 DX축진 기술개발 사업'공모 선정으로 경북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산업 성장 기반인 '한류 메타버스 데이터센터'와 한류 확산 거점인 '한류 메타버스 전담'조성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경북은 이러한 신산업 인프라를 집적시켜 경북을 메타버스 글로벌 플랫폼으로 만

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미디어) 국내를 대표하는 시대적 촬영지 문경을 '영상 산업 메카'로 육성한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 촬영이 가능한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사업이 2024년 정부안에 반영됐다. 경북도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미디어 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유인해 기업 유치까지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콘텐츠) 대한민국 한류 문화자원을 신기술 융합 콘텐츠로 활용하는 연구거점을 조성한다. 지난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메타버스 콘텐츠 거점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연구거점 조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도 융합 콘텐츠 발굴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양성) 취업과 연계된 실무인재부터 대학원 이상의 고급 인재까지 아우르는 메타버스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가 '디지털 마이스터고'로 지정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와 메타버스 콘텐츠개발학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오공대와 포항공대는 석·박사 대상으로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랩'으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대학생 실무인재 양성 사업인 '메타버스 아카데미'와 연계하고, 도내 대학과 함께 2024년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지정을 준비해 학생 단계별 현장 맞춤형 인재 양

성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메타버스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집중투자한다는 정부 정책방향과 연계한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현 상황에 맞춘 나날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4년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업특화형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조) 금속DX 실증센터 구축 ▲(안전) 산업안전 서비스 플랫폼 구축 ▲(농업) 지능형 농작업 기계 실증연계 플랫폼 구축 ▲(에너지) 디지털 기술 융합 산단 물관리 플랫폼 구축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메타버스 산업의 확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메타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메타버스 생태계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규제혁신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메타버스 기업의 지역 투자를 유도하고 신산업 창출의 물꼬를 튼다. 나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메타버스 전담 부서가 신설된 2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도민들이 신산업 추진에 공감하고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며, "산업화 시대에 철강과 전자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경북이, 글로벌 메타버스 중심지로 다시 지역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예천군,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 점검 나서

####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예천군은 개학기를 맞아 오는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위해요인 안전 점검 및 단속을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 안전, 불법 광고물 등 어린이 관련 안전관리가 필요한 4개 분야별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분야별 점검 사항은 △교통안전(불법 주·정차, 과속 통학 차량, 보호구역 실태) △유해환경(불법 영업시설, 유해시

설, 청소년 보호 위반) △식품 안전(식중독 예방, 식품위생, 불량 식품) △불법 광고물(노후 광고물, 불법 광고물) 등이다.

황재국 안전재난과장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 점검과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봉화군, 추석맞이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 나서

#### 올바른 의약품 관리와 판매질서 유지 점검

봉화군보건소는 27일까지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비상 진료기관 및 약국 운영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의료기관 20개소(병원 2개소, 의원 18개소), 약국 11개소이며, 주요점검 사항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의약품 준수 여부 △약국 약사법 준수 여부 △의약품 적정 유효기간 관리 △의약품 표시 기재 및 현장 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은 추석명절 연휴를 대비해 병의원 및 약국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으로 올바른 의약품 관리와 판매질서 유지에 대한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안내해 불법행위 근절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안전한 의약품 유통 및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추석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 및 문 여는 약국을 지정 운영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문경시, 집중호우 및 냉해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 피해 주민 지원 발벗고 나서

문경시는 지난 7월과 4월 집중호우 및 냉해로 인하여 해당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지방세 감면 방안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집중호우에 의한 사망자 및 유가족·재해 피해자 및 냉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자 등이다.

감면 내용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소유)를 각각 전액 감면한다. 한편,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피해를 인정받은 세대 및 사업자의 주민세를 100% 감면하고, 전파·반파·침수로 피해를 입은 주택, 건축물(부속토지포함)에 대하여 재산세 100% 감면하며, 유실이나 매몰된 해당 토지의 재산세와 침수, 유실 등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각각 100% 감면한다. 또한, 지난 4월 냉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토지도 재산

세 토지분을 100% 감면한다.

감면은 문경시의회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2023.9.15.)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의해 피해사실이 인정된 자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피해신고 누락자는 증명서류 등을 검토 후 감면할 예정이다.

신한국 문경시장은 "이번 집중호우 및 냉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3 의성군 일자리 박람회

일시: 2023. 9. 20. (수) 14시~17시

장소: 의성체육관(의성을 충효로 88)

주요내용: 취업 희망하는 군민 누구나

행사장내 자영업자특별상담

- 채용관: 우수기업 14개사
- 홍보관: 고용정보제공, 의성군청·지역사회포럼
- 취업지원관: 인사지원센터, 피싱예방센터
- 무대행사관: 취업박람회, 이력서·사진촬영

의성군 청년정책과 054-830-6562 | 박람회 운영사무국 054-453-1949

### 의성군, 2023 일자리 박람회 개최

의성군은 20일 '2023 의성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의성군이 주최하고, 안동고용노동지청에서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구직자에게는 관내 우수 기업의 취업 기회를, 구인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박람회는 채용관, 홍보관, 취업지원관, 무대행사관 총 4개관 24개 부스로 운영되며 관내 14개 기업이 참여하여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또한 이력서 사진 촬영과 인사서류 클리닉, 퍼스널 컬러 진단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

리고 사회적경제관, 청년창업 상담관 등이 함께 운영되며, 의성고용복지센터도 참여하여 구직자들의 구직 등록을 돕는다.

'2023 의성군 일자리 박람회'는 의성을 의성체육관에서 9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관내 우수 기업체를 널리 홍보하고 구인·구직자 간의 일자리 매칭을 해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영주, 같이 그 이상의 가치'... '영주시원(ONE) 한마당' 개최

#### 문정둔치 일원서 시민화합의 장 마련

영주시는 7월 집중호우로 취소된 시민원(ONE) 축제를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2023영주시원(ONE) 한마당'으로 변경 개최한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휴식처인 문정둔치 일원(시민운동장 앞)에서 열리는 영주시원(ONE) 한마당은 수해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힘을 합쳐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가자는 굳은 의지가 담긴 시민 화합의 장으로 진행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정서주와 여행스케치가 참여하는 시민원(ONE) 축하공연, 낭만 가득 버스킹 공연, 히든싱어 공연, 푸드트럭과 관내 먹거리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배달존과 경품 가득한

영주중 이벤트가 펼쳐져 서천의 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또한, 지난 1년간 진행된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의 '문화도시 기반조성 삼삼삼', '나도 문화인페스타 영주문화살롱' 사업 참여자 약 60팀이 참가해 성과물을 선보이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성과공유회'와 연계 운영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2023영주시원(ONE) 한마당이 기록적인 수해 피해로 인해 지친 영주 시민을 위로하고 영주시 전역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10월 개최 예정인 무성외나무다리축제와 인

2023 영주, 같이 그 이상의 가치

영주시원(ONE) 한마당

2023. 9. 23 (토) ~ 24 (일)

영주시 문정둔치 일원(시민운동장 앞)

# 여행스케치, 트로셋팅, 정서주, 버스킹, 지역문화예술인 공연, 먹거리존 / 배달존, 시민화합행사, 영주중 이벤트

삼축제, 올해 첫 선보이는 영주장날 농특산물축제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도-시군 청렴 동반상승협의회 개최

## ‘청렴한 지방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의 필수 조건’



경북도는 18일 '2023 도-시군 청렴 동반상승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최된 영상회의에서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및 정성현 경북도 감사관, 22개 시군 감사담당관이 참석해 청렴 경북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시군 청렴 동반상승협의회는 도와 시군의 종합청렴도 동반 상승을 위해 도와 22개 시군의 부단체장과 감사담당관으로 구성되었다.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시책을 공유하며, 청렴도 우수기관과 하위 기관 간 청렴 컨설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 청렴 우수시책 및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실적 보고 △시군 청렴 우수시책(갑질 개선 등) 발표 △도-시군 청렴 컨설팅 결과 등을 공유하

고 청렴도 향상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경북도는 2023년 반부패·청렴 취약 분야 중점 개선 분야로 도출한 갑질 문화 개선 주요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통해 직장 내 갑질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안심 상담 체제 운영 등의 시책을 공유했다.

또 시군 감사담당관들과 각 기관별 청렴 및 갑질 방지 우수시책 사례를 공유하며, 조직 문화의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청렴한 지방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의 필수 조건이다”라며, “경북도와 시군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청렴한 지방정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동래구, (주)롯데디자인즈가 함께하는 야구DAY 운영

## 8월 26일 사직야구장, 동래구민 주민등록주소 확인 후 티켓 50% 할인

동래구는 오는 26일 18시 롯데디자인즈와 KT위즈의 경기가 열리는 날 '동래구와 롯데디자인즈가 함께하는 야구DAY'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래구민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롯데디자인즈와 KT위즈의 경기 티켓을 50% 할인하여 판매하며, 동래구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지참하여 티켓 구매 후 관람하면 된다.

티켓구입은 현장구매만 가능하며, 경기 시작 2시간 전(오후 4시)부터 사직야구장 1루/3루/외야 매표소에서 1인 1매 구매 가능하다.

티켓구매 문의는 롯데디자인즈 티켓 콜센터로 하면 된다.

프로모션 행사와 병행하여 5회말 클리닝 타임에는 '동래구 학습 서포터즈 치어

리딩' 프로그램을 수강한 청소년들의 치어리딩 공연으로 재능을 마음껏 펼칠 기회도 갖게 된다.

동래구청 관계자는 “구민들이 한여름 밤 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힘찬 응원으로 무뎠던 날려 보내고 추억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 부산시, '부산바이브' 캠페인 전개... 부산의 자부심 발굴한다!

## 올해 부산바이브 캠페인으로 갯생림픽 개최

부산시는 부산시민과 함께 부산이라는 도시의 숨겨진 자부심을 찾아 공유하는 '부산 바이브(BUSAN VIBE)'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부산의 사람, 장소, 음식, 문화 등 해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부산이라는 도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요소를 발굴, 기록, 공유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시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올해 캠페인으로는 '부산에서 \_\_\_\_\_을 만든 사람들'을 주제로 '2023 갯생림픽'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부산에서 '부산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제품, 예술품 등 유·무형의 무언가를 만든 사람을 발굴한다.

'2023 갯생림픽'은 '올림픽' 종목처럼 예선과 본선을 통해 금, 은 동메달 수상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부산에서 무언가를 만든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15일까지 부산바이브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자신의 도전을 담은 출품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더욱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일부'와 개인·법인 사업자를 보유하고 한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부'로 나눠 출품자를 모집한다.

신청 접수가 끝나면, 캠페인 참가자 중 예선 심사를 거쳐 10월 중 본선 진출자 8명을 선정한다.

본선 진출자로 일반부 4명, 프로부 4명을 선정하며, 본선에 진출하기만 해도 호텔숙박권, 언론홍보, 한정판 메달 등을 제공한다. 또한, 향후 '부산 바이브 캠페인'을 알리는 광고 모델로도 참여할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본선 심사는 본선 진출자의 도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다음, 공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금, 은 동메달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추첨을 통해 출전자 중 30명에게는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과 자신의 이야기를 전자책 수록해 홍보할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 부산바이브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부산바이브 위크(WEEK)'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날에는 광안리해수욕장 플로깅과 부산에서 도전한 이야기를 가진 4명의 연사가 릴레이 강연을 펼쳤으며, 105명의 시민이 함께 자리해 부산의 자부심을 공유하는 장을 가졌다.

특히, 이날 진행된 릴레이 강연에는 지난해 부산바이브 캠페인의 본선진출자가 참여하기도 했다.

나윤빈 부산시 대변인은 “부산에서 부산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음식, 예술, 제품, 관광상품 등 유·무형의 모든 것을 만든 시민들의 도전을 모집하고 있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부산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 변화하는 신천! 물과 푸른 숲이 공존하는 고품격 수변공원

## 푸른 신천숲 올해 10월 500주 식재 시작으로 내년까지 그늘있는 숲길 조성

대구광역시 민선 8기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을 통해 신천을 일상의 활력이 넘치는 도심생태공간으로 변모시켜 나가고 있다.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은 연간 6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찾는 신천을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과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총사업비 1,296억 원을 투입하여 ① 고품격 수변공원화 ② 건강한 물길 복원 ③ 시민 일상향유 공간조성 ④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시스템 구축 등으로 신천을 대구 도심의 대표적인 여가 및 관광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우선 대구광역시는 올해 10월부터 신천 둔치 대봉교~상동교 좌안 구간에 느티나무 등 수목 500여 주 식재하고, 내년까지 도심 구간에 총 3천여 그루의 수목을 식재해 '푸른 신천숲'을 조성한다.

숲길, 쌈지숲, 미니공원으로 조성되는 '푸른 신천숲'은 시민들에게 물소리

를 들으며 걷고 싶은 녹음길을 조성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휴식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천숲 조성과 관련해 안전 사각지대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까지 가로 등 900주와 CCTV 22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시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신천 둔치의 야간경관도 개선해 누구나 안심하며 산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신천의 수려한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대봉교 인근에 리버뷰 테라스를 조성해 수변에서 감성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다.

문화공간인 신천 수변무대도 올해 9월 중 마무리가 된다. 더 많은 시민이, 더 다채롭게, 더 즐겁게 신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행사 등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클래식 공연 및 소규모 버스킹 공연도 이루어지고 사계절 내내 음악과 예술로 가득한 신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지만 매년 설치와 철거가 반복됐던 간이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은 내년부터 사계절 활용이 가능한 고정식 물놀이장으로 운영돼 예산이 절감되고, 전국 최초로 하천 둔치에 파도풀도 도입될 예정이다.

고정식 물놀이장은 겨울엔 스케이트장으로 봄·가을엔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해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는 수변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며, 1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 신천 둔치 보행로가 대폭 재정비됐다. 동신교~상동교 좌안 3.7km 둔치 폭이 3m에서 5m로 확장됐으며,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사용하던 일부 구간을 완전히 정비·분리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조성해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

이에 2단계 보행환경개선사업도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2025년까지 희망교~침산교 우안둔치 6.7km도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푸른 신천숲, 사계절 물놀이장, 리버뷰 테라스 등 보고, 듣고, 체험하며 오감이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고, 안전시설도 추가로 설치할 것이다”며, “신천을 보다 안전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대구만의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김동현/기자

# 달성군, 풍수해 보험으로 안전을 가입하세요

## 8가지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 적극 홍보, 자연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달성군

달성군은 저렴한 보험료로 법정 8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권장하고, 7개의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은 주민 스스로가 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서, 대설,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라 주택 등에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 총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상가·공장(소상공인) 소유자이며, 주택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총 보험료의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78%~10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87%~100%까지 국가 및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개별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7개의 민영보험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적극 가입하도록 홍보하여 재난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김동현/기자

# 청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역량 강화교육』가져



청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활성화 사업으로 지난 7월 천연연색 체험 및 역량 강화교육에 이어, 최근에는 뜨개가방 만들기 체험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뜨개가방 만들기 체험 및 역량 강화교육에는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25명 정도가 참석했으며, 봉사자들의 역할, 임무 등의 내용을 교육해 실시

한 후 뜨개가방을 만들어보는 체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청송군은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상담자원봉사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질 높은 청소년상담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에서 아동, 청소년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특히 학교 내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청소년의 정신건강 안정과 긍정적인 관계관계를

도와오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교육으로 봉사자의 개인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 청소년의 문제 예방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인천시 남동구, 9월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인천 남동구는 최근 제23회 소래포구축제 행사장에서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 박종호 구청장을 비롯해 안전총괄과, 동 행정복지센터, 안전보안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과 지진 안전 주간 행동요령, 추석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 예방

수칙 및 행동 요령 등을 홍보했다. 앞서 구는 지난 14일 소래포구축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 인천시를 비롯해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점검반을 구성해 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와 화재, 교통 등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박종호 남동구청장은 "안전한 남동구가 되기 위해서는 구민 개인의 안전 수칙 준수와 같은 작은 실천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남동구에서도 지역사회에 안전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 전북도,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도내 수입 수산물 유통업소 26개소 대상, 9.18.~9.22. 실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2023.8.24.)에 따른 도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도수산정책과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대상 품목은 올해 수입이력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로 해양수산부 제공 도내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26개소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준수여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이

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해주시길 당부했다. 이남철/기자

### 파주시, 추석 연휴 공원묘지 주변 노점상 단속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성묘길 조성

파주시는 추석 연휴 동안 주요 공원묘지(동화경모공원, 서울시립공원묘지) 주변 도로에서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꽃 좌판, 과일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도로상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교통 혼잡 발생 및 도시경관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한가위를 맞아 공원묘지에 방문하는 성묘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성묘길을 제공하고자 한다. 시는 2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도로를 불법 점유해 노점 행위를 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즉시 이동조치 및 자

진철거 계도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수거)을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묘객들에게 안전한 성묘길을 제공함과 동시에 귀성객들의 쾌적한 도로 환경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추석 연휴 동안 귀성·성묘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점뿐만 아니라 도로 및 도시시설물도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있다. 한영기/기자



### 용인특례시, 22일까지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 특별단속

18일부터 22일까지 전 역사에서...승차권 미소지·할인권 무단 사용 등 점검

용인특례시는 용인경전철의 올바른 승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15개 전 역사에서 부정 승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권 또는 할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정기권을 2인 이상

이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승차 행위가 적발되면 여객 운송 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근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은 물론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부정 승차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용객이 많은 기흥역과 운동장·송담대역 등 주요 역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 역사에서

역무원이 어깨띠를 착용해 단속 내용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경전철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정 승차를 막는 데 노력하겠다"며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삼/기자



### 태백시, 개학기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추진

태백시는 지난 14일 개학기(2학기)를 맞이하여 학교 주변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변화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추진하였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태백경찰서, 태백교육지원청, 태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태백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단속 ▲청소년 유해표시 부착 여부 등 점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행위 단속 ▲가출·비행 등 위기청소년 발견 시 계도 및 보호기관 연계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관련 홍보 활동 등이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관내 변화가 및 유해업소 밀집 지

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유해환경 개선과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





#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가을 단풍길 걷기 행사 개최

## 숲해설사와 생태탐방로 걷기, 문화공연 관람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구공원은 2023년 가을을 맞이하여 흥천군 북방면에 위치한 자연환경연구공원 생태탐방로 일원에서 10월 14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을 단풍길 걷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연환경연구공원의 생태탐방로를 숲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350년 복자기나무 이야기, 늦반딧불이 이야기 등 숲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과 나무, 식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탐방할 수 있다.

특히 생태탐방로 중 잣나무 군락지에서는 피톤치드 발생량이 산림욕장 수준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욕을 하면서 면역력을 높이고, 도심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걷기 코스는 멸종위기식물원~구절산 생태탐방로를 걷는 산길코스(7km)와 대

룡산저수지 둘레 물빛낭만길을 걷는 물길코스(5km)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완주 후에는 야외공연장에서 신나는 인디밴드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흥천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응급구조 안전요원과 교통정리 인원 배치 등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참가 신청은 10월 6일까지 자연환경연구공원 홈페이지 예약 및 전화접수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다. 세부 행사 내용 및 유의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지기선 소장은 "가을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숲속 단풍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의 건강도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 충남도,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채취 등 집중 단속

## 도, 다음달 31일까지 시군 합동 단속...산림 생태계·임업 생산자 보호

충남도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우려해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도와 15개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중점으로 살피고 수목 훼손, 산림 내 취사,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의 행위도 단속한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산림보호 캠페인 등을 전개

해 단속 계획을 알리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근절할 방침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펼쳐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채취 등 산림 생태계와 임업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단속 등 산림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 행위는 49건으로 피해액은 총 5억 원에 달한다.

최정근/기자



# 충북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 추진 의지 밝혀

## 청주국제공항 슬롯 시간당 1회 확대 → 국제노선 대폭 증편 기대



충청북도도는 늘어나는 청주국제공항의 운항 수요에 맞게 동계 시즌이 시작되는 10월 29일부터 주중 슬롯이 시간당 6~7회에서 7~8회로, 주말 슬롯은 시간당 7회에서 8회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민군 복합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은 그동안 슬롯 제약으로 국내의 노선 항공편 확대가 어려워 공항 활성화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번 슬롯 확대로 주중(750→870회, 120회↑)과 주말(336→384회, 48회↑)을 합쳐 주당 168회·연간 8,760회를 추가 운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사와 승객들이 선호하는 시간에 항공편을 추가 투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항공 수요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슬롯은 충청북도가 아니

라 공군, 국토부, 공항공사 세 항공전문기관이 함께 논의하여 공항의 현재 및 미래 항공수요 등을 기반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 슬롯 확대는 정부가 인프라 확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청주공항의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을 세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청주공항 인프라 확충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2023.1~8월까지 청주공항 이용객은 약 230만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동 기간보다 13.4% 증가하며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커피타임이 없는 24시간 공항, 충청권 광역메가시티 중

심, 행정수도 관문 등 최고의 입지 조건 등을 생각할 때, 5년 내 여객 이용객이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청북도도는 이번 슬롯 확대를 계기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항공수요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현재 청주공항에는 5개국 8개 국제노선(베트남 2, 태국 1, 일본 2, 중국 2, 대만 1)이 운항 중인데, 오는 10월 후쿠오카(일본), 11월 다렌(중국), 클락(필리핀) 등을 추가하여 연내 총 9개국 18개의 국제노선이 확대 운항될 수 있도록 항공사 등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에는 중국 청도, 몽골 등 새로운 노선을 개척하여 청주공항을 통해 보다 많은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관광객과 근로 유학생 유치 등 충북 현안 사업과도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는 면세품 인도장을 재가동하고, 법무부에 건의하여 출입국 심사인력 등도 최대한 빨리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적시 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우선 국제선 이용 수요는 2023. 8월 이용객이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동월(52,063) 대비 46.4% 증가한 76,200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청주공항의 작년 여객 이용객이 개항 이래 최대 실적인 317만명을 기록하며 이미 국내 여객터미널 수용 한계인 289만명을 훌쩍 넘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국제선 여객터미널 신축' 사업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청주공항 입점 항공사의 항공기 추가 도입 및 국제선 증편에 대비한 주기장 확충사업 예산 확보에도 힘쓸 것이다.

이러한 단기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활주로 연장과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 사업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활주로 연장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용역('23.5.~'24.5.)에 반영하여 청주공항이 항공화물 중심 공항이 되도록 추진하고,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는 신설 위치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토를 위해 내년에 바로 용역에 착수하고 도민의 동참과 의견 표명을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민·관·정 위원회 발족도 준비하고 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우리의 요구에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164만 도민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외쳐야 한다"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충북의 경제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라는 대장정에 다 함께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정화/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신규 시책발굴 '5대 기준' 제시 눈길

## 18~19일 2일간 '2024 혁신 시책구상 보고회' 개최

아산시가 내년 시정의 새로운 환경 변화와 행정 수요를 담은 미래지향적 시책 발굴에 팔을 걷고 나섰다.

시는 18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박경귀 시장과 조일교 부시장, 실·국·소장, 정책특별보좌관 및 참여자치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혁신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했다.

19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이번 보고회에는 국·소별 자체 발굴한 시책과 타시군 벤치마킹 사례, 정책특별보좌관과 참여자치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9개 분야 총 135개 시책에 대해 논의한다.

첫날에는 기획경제국, 행정안전체육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홍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의 시책을 다뤘다. 둘째날은 문화복지국, 건설국, 도시개발국, 보건소, 수도사업소, 평생학습문화센터의 시책발굴 보고가 이어진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경귀 시장은 시책발굴을 위한 5대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시장은 "시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공정과 형평'에 맞는지, 또 '시급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여기에 올라온 사업 중 나쁜 시책은 하나도 없다.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지에 따라 채택하거나 잠시 미룰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는 '효과성'이다.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내다봐야 한다"며 "네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다. 공공분야 시책은 한 번 만들어지면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시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사업도 다시 돌아봐야 한다. 이미 해온 시책이지만 사업방식만 달라져도 효과가 변하는 사업이 있다. 이게 '업무의 혁신성'이다"라면서 "이렇게 5가지 기준을 갖고 가능하면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국·소별 발굴한 시책구상 보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 제안, 박경귀 시장이 주재한 종합 토론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시책발굴부터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거버넌스 행정'으로 진행하며 의미를 더했다.

한편 시는 보고회 후속 조치로 지휘부 당부사항 및 전문가 자문 등 검토 의견을 반영해 예산·비예산 사업별 대응과 함께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한다.

또 예산사업은 주민수해도, 예산 대비 효과성 등을 검토해 본예산에 반영하고, 비예산사업은 2024년 시행을 위한 사전 세부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김원호/기자



# 태백시, 추석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추진

태백시는 지난 18일 추석 연휴(9.28.~10.1.)를 앞두고 귀성객 등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3곳(이마트, 오투리조트, 태백스피드웨이)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추진했다.

점검반은 다중이용시설 관리부서(경제과, 문화관광과, 스포츠과) 및 태백소방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점검을 실시했으며,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 위기상황 매뉴얼 및 자체훈련 실시여부

확인 ▲소방, 전기, 가스 시설의 분야별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관리주체가 빠른 시일 내 보완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상근/기자



# 원강수 원주시장, 간담회 열고 소공인 목소리 청취

## 소공인 복지지원센터 구축 운영 등 소공인 의견 수렴

원강수 원주시장은 19일 원주시청에서 강원소공인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에 공모 선정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소공인 복지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강수 원주시장, 김태훈 부시장, 이병철 경제국장, 고충철 강원소공인협의회장, 유연근 강원소공인협의회 영서지회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원주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소공인 복지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소공인들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했고, 소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

취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소공인 복지지원센터는 동화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계 등 활용도가 매우 좋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오늘 참석해 주신 소공인들이 주역이 돼서 앞으로 건립될 반도체교육센터, (가칭)원주미래산업진흥원 등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산업 및 경제 분야 진흥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 금천구, 1인가구 가을엔 '걷자' 걷기 챌린지 '도전'

### 10만 보 달성 및 3회 이상 걷기 인증 과제 달성하면 상품 받을 수 있어

금천구는 금천구 1인가구 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10월 한 달간 1인가구 걷기 대회 '1로걸어 가을속으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로걸어 가을속으로'는 건강에 소홀하기 쉬운 1인가구 주민에게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게 하고, 1인가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다.

참여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100명(신청순 모집)이다.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9월 27일까지 금천구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 안내-프로그램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전 과제는 '10만 보 걷기'와 '3회 이상 걷기 인증' 두 가지다.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10만 보를 걸어야 한다. 단 1일 최대 걸음은 7,000보만 인정된다. 또

한 1인가구 네이버 밴드에 걸음 수가 나오는 화면을 3회 이상 인증해야 한다.

두 가지 과제를 모두 달성하면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들은 1인가구 밴드에서 다양한 1인가구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1인가구 주민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관심 있는 주민들께서는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1로걸어 가을속으로**

대상: 금천구 거주 1인가구(신청순 100명)  
 신청기간: 2023년 9월 18일(월) ~ 9월 27일(수)  
 챌린지 기간: 2023년 10월 4일(수) ~ 10월 31일(화)  
 챌린지 미션: **미션 1** 10월 한 달 동안 10만보 걷기 (1일 최대 인정 걸음수 7천보)  
**미션 2** 미션 기간중 3회이상 1인가구 밴드에 걷기 인증 (날짜, 걸음수가 나오는 화면 캡처 후 글 작성)  
 주미션 1, 2 모두 달성 시 **3만원 상당의 상품 제공!** (미션 달성 후 1인가구 증명서로 제출 필수)  
 신청방법: 1. 금천구가족센터 로그인/회원가입  
 2.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에서 "1로걸어 가을속으로" 검색  
 3. "1로걸어 가을속으로" 신청하기 클릭!

# 성동구, 코르크 마개 재활용한 친환경 바닥재 설치

### 와인 소비 증가에 따라 친환경 소재인 코르크 마개 재활용 사업 추진

서울 성동구가 코르크 마개를 재활용한 친환경 바닥재를 시범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코르크 마개 재활용 사업을 위해 코르크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주)에스비드, 와인 판매 사업자 (CCC, 하이홀본) 간의 민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여 현재 와인판매 사업장 45개 업체가 코르크 마개 수거에 동참하고 있다.

코르크 바닥재는 시멘트와 비교하여 약 5배, 우레탄(고무분말)보다 약 6배 가량 열전도율이 낮아 열섬현상 완화가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여름철 주민 휴식처인 구청 광장에 시범 설치했다.

또한, 코르크 고유의 적절한 탄성과 미

끄럼 저항성으로 보행 시 안전성이 올라가고 우수한 배수성으로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코르크 재활용 사업은 이번 시범 설치 후 주민 만족도 및 효과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산책로, 체육시설 등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석유화학 원료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타 도로 포장재보다 코르크는 유해물질이 적은 친환경 소재"라며 "와인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코르크 마개의 자원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 강남구, 아파트 동별 대표자 직무·윤리교육으로 역량 높인다!

### 21일 200명 대상...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교육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21일 13시~17시 대치2문화센터 3층 강당에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2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직무·윤리교육을 실시한다.

강남구에는 총 291개 공동주택 단지에 12만 7467명이 거주하고 있다.(2023년 8월 기준) 이 중 172개 단지의 동별 대표자 1,117명은 공동주택관

리법(150세대 이상)에 따라 연간 4시간 동별 대표자의 직무·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구는 전문가를 통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 전체 주민의 약 65%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교육은 전체 대상자 중 온라인 교육이수자와 사전컨설팅참여자를 제외한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강사는 주택관리사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주택관리사 2명을 초빙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실무내용과 사례 중심의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아파트 관리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실제 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동대표의 역량을 높일 것이다"며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주민 등이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교육을 실시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아파트 관리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실제 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동대표의 역량을 높일 것이다"며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주민 등이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 서울 중구, 재개발 전문가 현장 상담 '문전성시'

### 중구, 재개발 각 분야 최고 전문가와 주민 1:1 맞춤형 상담 주선

서울 중구가 운영하는 '재개발 전문가 현장 상담'에 주민 반응이 뜨겁다.

구는 지난 14일 오후 신당누리센터 3층 회의실에서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인 신당10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개발 전문가 현장 첫 상담을 진행했다. ▲감정평가 ▲분양권 ▲세무 ▲법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주민들과 직접 만나 1대1로 맞춤형으로 이어갔다.

신당10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중 공공 지원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는 최초사례이기 때문에 구는 주민들이 개발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조합설립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기존의 상담과는 차별화된 재개발 전문가 현장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고 구의 예상은 적중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그동안 쌓였던 궁금증을 해소하며 상담 내내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길성 중구

청장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상담내용을 살폈다.

주민 문의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분양권과 감정평가였다. 주로 소유 물건의 분양권 여부, 다물권자의 분양권 개수, 감정평가물건의 규모에 따른 평가 예상액, 분양예정평수 등에 대해 궁금해했다.

상담은 사전 예약을 받아 운영했지만, 당일 입소문을 듣고 달려온 주민들에게도 상담 기회를 부여해 현장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구는 당초 사전 예약한 43명만을 소화하기로 했지만, 현장에 찾아온 58명 모두와 상담하기 위해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상담을 이어갔다. 이마저도 대기가 길어져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가는 주민들도 있었다.

중구는 주민들의 열띤 반응에 요청에 오는 20일(수) 오후 1시 신당누리센터 3층 회의실에서 다시 한번 재개발 전문가

현장 상담을 연다. 아울러 구는 상담 기간 연장과 대상 구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신당10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로 정비계획 수립 등 기간을 단축한 끝에, 지난 6월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구역 면적은 6만 3893㎡로 1천 423가구에 35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마쳤다. 현재는 서울시 최초로 조합직접설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조합설립 동의를 받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재개발에서 발생하는 주민 권리 행사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불거지지 쉬운 오해를 풀기 위해 전문가 상담이란 최적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연말 조합직접설립을 도모하는 신당10구역 재개발사업을 더욱 가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제 33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The 33th Gyeongbuk Sports for All Festival  
 2023.9.22.(금) - 9.24.(일) 3일간  
 울진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개회식 2023.9.22.(금) 17시 / 울진종합운동장 축하공연 [식전] 김용임 / [식후] 박지현 | 양지은  
 ※ 개회식 참가자 전원 선물증정 및 사은품 천만원 상당 추첨  
 [주최] 경상북도·경상북도체육회 [주관] 울진군·울진군체육회 [후원] 대한체육회





# 경북교육청, 내년도 도내 농어촌지역 통학차량 지원 확대한다.

##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2024년 통학지원 심의

경북교육청은 읍·면 소재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 통학업무 관련 부서장과 도의원, 교통·안전 분야 중사 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학 지원 대상 선정 등 통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는 △통학차량 운영 지원 개정 △2024년 통학 지원 대상과 선정에 대해 심의했으며, 심의 결과 교육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도내 농어촌소재 학교 중 12교, 17대의 통학차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대중교통이 없고, 통학차량이 없는 농어촌 소재 중학교 학생에게 에듀택시 6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해 통폐합 학교 외에도 통학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추가 지원 결정에 따라 2024년부터는 공립학교 통학차량이 올해 859대에서 내년 876대로 늘어나 보다 많은 학생들이 통학지원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박용조 행정과장은 “학생의 통학 편의와 교육접근성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통학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통학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교육청, 사춘기 자녀 이해 돕는 학부모 행복학교 운영

## 학교폭력 예방법, 사춘기 자녀와 대화 방법 알려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사춘기 자녀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학부모 행복학교 8기’ 연수를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1차 연수는 10월 6일 오후 7시 부산교육연구정보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노윤호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엄마, 아빠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강의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노 변호사는 누구나 학교폭력의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상황과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을 알려준다. 또,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예방법 등 부모의 지도와 역할에 대해 안내한다.

2차 연수는 10월 25일 오전 10시 부산디자인진흥원 6층 이벤트홀에서 운영한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가 강사로 나와 ‘사춘기 힘든 마음을 통쾌하게 드립니다’를 주제로 강의한다.

김 교수는 힘들고 불안해하는 사춘기 자녀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해·자살 실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대화하는 법 등을 알려준다.

참가 희망자는 9월 20일 오전 10시부터 학부모지원포털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학부모지원포털에서 확인하거나 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 울산교육청, 전 교직원이 위기학생 통합 관리

## 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모든 학생 전인적 성장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전 교직원과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직원의 협력적 소통을 통해 복합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필요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 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사례를 공유하고자 강남교육지원청과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전 초·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9월 20일, 10월 10~11일 울산과학관과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교육부 지정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이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초·중·고 희망 교직원을 대상으로 위기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의 관계기관을 소개하는 사례 나눔회도 연다.

12월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현황 조사,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학교 내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을 돕는 안내서를 보급한다. 현장 교직원들을 지원하고자 지원팀의 단계별 운영, 학생 유형별 지원 방안, 위

기학생 진단 도구, 지역 관계기관 안내,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포함해 안내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기존 학생 중심 모바일 사이트인 울산행복샘도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울산행복샘은 울산 학생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학생 복지와 안전 정보를 검색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사이트를 통해 복합적 어려움에 부딪친 학생을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연계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학생 발굴은 학교에서 많이 이뤄진다”며 “모든 학생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 교직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황규진/기자



# 경북교육청, ‘교과 중점 중학교’ 운영으로 소규모학교 교육력 강화

## 칠곡군 동명중학교, 신동중학교 2교 지정

경북교육청은 칠곡군 소재 동명중학교와 신동중학교를 교과 중점 중학교로 지정해 2024년부터 특화 교육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교과 중점 중학교’는 특화된 교과(글로벌 영어, 인공지능 수학, 정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개별 맞춤형 교육체제를 구축해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오는 학교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경북교육청은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칠곡군 지천·동명 지역의 학생 유출을 막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신동중학교와 동명중학교를 교과 중점 중학교로 지정했다.

두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특화 교과 중점 편성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학생 참여형 교과 심화 수업 △특색 있는 방과후 학교 운영 등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여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두 학교의 글로벌(영어), 인공지능(수학, 정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 인사, 교육과정 컨설팅, 예산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세계시민 자질의 함양을 위해 영어권 국가를 방문해 외국 문화와 학교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임중식 교육감은 “교과 중점 중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교육력을 높이고, 지방소멸시대에 지역과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역과 학교의 상생을 위해 교과 중점 중학교에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 학생의 외부 유출을 막고 타 시도 학생의 유입을 유도해 칠곡군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 창과방패

# 고소특 공익신고 창과방패

(돈 버는 비법 지침)

문성욱 지음

문화여성

## 튀김 주방大변혁

# 유증기 퇴출로 쾌적한 주방 환경

# 유해물질 99.98% 감소

**식용유활성화기기 Vitalro 바이탈로 Oil Fresher**

**유증기 감소 효과로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

**※유증기 발생으로 인한 금식식당 종사자 피해-산업재해 인정※**

금식식당 폐업 1만명 달해...의심자 341명, 총격적인 검진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폐업검사 결과 수검자 32.4% 이상소견 발생 수년째 경고했지만 중력-학교비정규직도 검진 당사자 입장 발표 애당분 금식식당 환경 개선과 인력 지원, 교육부 예산 촉구

**Vitalro는 국내 유일 최극소량 유증기 발생**

국내 유일의 최극소량 발생 시험성적표입니다. (유증기로 인한 주방-매장의 악취-화재발생-조리사의 건강악화를 예방합니다)

비탈로 식용유	일반 식용유
유증기 발생량 비교 실험 (한국기계연구원시험연구원 2023.03.24.-04.05.)	
<b>비탈로 식용유</b>	<b>일반 식용유</b>
0.02wt%	0.17wt%
(중발량 170°C, 24시간)	

**HAS 고향방송 선정 맛집여행**

**Vitalro 설치업소**

의정선 시제료와 깨끗한 비이탈로식용유로 고객에 대한 정성이 깃든 쾌적하고 안전한 매장

(주) Myonjin Vitalro **설치·상담 문의 1899-9659**

명진 바이탈로 한국친환경실천연구원

A/S 및 소비자상담실 02)477-5004



# 충북도, 2023년 충청권 중소기업 박람회 성황리 폐막

## 인도네시아 판로개척, 수출계약 575만 (US)달러 달성!

충북도는 대전·충남과 공동으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23년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575만 달러(한화 약 76억원 상당)에 이르는 수출계약체결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19일 밝혔다.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는 충청권 3개 시·도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동반상승효과(synergy)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공동개최 해오는 행사로, 특히 이번 박람회는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유일의 종합 소비재 전시회인 2023년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 부스를 구성해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충청권 48개 중소·벤처기업은 박람회 기간동안 우수기술·제품 전시회 및 현지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수출상담회를 통해 3개 시·도 합산 426건(2,600만 달러, 한화 약 350억원 상당)의 바이어 상담을 진행하

고 575만 달러에 이르는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 바이어들의 열띤 호응속에 박람회를 마쳤다.

이와 더불어 3개 시·도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인 'LPPOM MUI'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충청권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 주재 한인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양국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시장·무역현황 등 비즈니스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박람회에 참석한 충북도 이해관 경제기업과장은 "양국의 문화·시장의 차이를 몸소 느끼고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노하우를 체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활발한 문화·경제적 교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광수/기자



# 산청군-베트남 단판현, 우호 교류 다져

## 산청엑스포 찾아 개최 축하 등 의향서 체결...자매결연 검토도

산청군과 베트남 단판현이 엑스포를 통해 우호 교류를 다졌다.

19일 산청군은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향도화엑스포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베트남 단판현 대표단이 산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산청을 찾은 방문단은 국제 교류도시 자격으로 엑스포 환영 리셉션과 개막식에 참석했다.

특히 16일에는 엑스포 메인무대에서 진행된 '자매도시 국제교류의 날' 행사에 편 후 한(Tran Huu Hanh) 의장을 비롯한 단판현 공무원들은 참석해 산청군과의 상호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또 양 도시 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위해 자매결연 체결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대표단은 행사 참여와 주요 관광지 견학 등 일정을 마치고 18일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방문이 두 나라간 우호 협력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 후 한 의장은 "이번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을 통해 산청군과 단판현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17일 일정으로 산청군과 자매결연도시 중국 우주시도 엑스포장을 찾아 개최를 축하하는 등 친선관계를 더욱 돈독히 한 바 있다.

최광수/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젊은 과학자들과 글로벌 협력의 미래를 그리다, 과학기술외교 포럼 시작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해외 우수 연구집단과 협력기반 형성 방안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9일 화요일 '과학기술외교 포럼(협의체)(2023.9-12월)'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외교 포럼은 2021년부터 총 3차례 개최되어온 전문가 협의체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외교 관련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해왔다.

금년도 과학기술외교 포럼(협의체)은 기존의 일회성 행사와 달리 3개월여간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용적으로는 글로벌(국제) 중추국가 실현 등 정부의 외교 방향에 합치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내년부터 대폭 확대될 국제협력 관련 연구개발 예산에 대비, 국제협력 정책·사업 의제를 발굴하고 연구자의 국제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해외 인력 교류 등 연구개발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연구개발(R&D) 분과와 국제협력 활동 및 협력기반 조성 등의 주제를 논의하는 비연구개발(BIR&D) 분과로 나누어 협의체를 구성했다. 분과별 위원으로는 향후 2~3년 간 중요성이 높아질 양자,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우주, 소재 등 유망 협력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30~40대 젊은 과학자, 연구행정 전문가를 위촉하여 창의적이고 신선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아울러, 논의의 숙성 과정을 거치기 위해 분과별 각각 2차례 공식회의(9월, 10월)를 거쳐, 분과별 논의사항을 정리하는 총괄 회의(11월)를 실시한다. 최종적으로는 분과위원, 국내·외 기관 소속 과학기술자,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종합 포럼(협의체)(12월)을 개최하고자 한다. 분과 및 종합포럼(협의체)을 통하여 논의·발표되는 사항은 차년도 과기정통부의 국제협력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금번 제1차 연구개발 분과 회의는 2024년도 국제협력 R&D 예산 확대에 대비하여 해외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양자·다자 국제공동연구 추진방식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국제협력 대상 국가 및 협력 채널(경로) 다변화 방안 등에 대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연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비연구개발 분과 회의는 외국 연구자, 재외한인 과학자 등 해외 우수 연구집단과의 협력기반 및 네트워크(연결망) 형성 방안과 관련하여, 해외 우수 두뇌집단과의 교류·소통 강화 등

국내 연구개발 생태계 참여 활성화 방안, 재외한인 협회를 통한 재외한인 과학자와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앞으로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미래에 국내·외 과학기술계에서 활동하며 국제협력의 주축이 되어 활동할 젊은 연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이들을 위한 정책에 반영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분과(8명)		
사진	성명/소속/직위	분야
	우재성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	첨단 바이오
	윤효상 KAIST 항공우주공학부 교수	우주
	최태영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	양자 컴퓨팅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	첨단 패키징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연구단 부단장	유전체
	심현정 KAIST 시대학원 교수	인공 지능
	손영익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양자
	석정돈 한국화학연구원 에너지 융합소재 연구단장	에너지 소재

BIR&D 분과(7명)		
사진	성명/소속/직위	분야
	김태욱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인력 교류
	이종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전략팀 책임연구원	해외 거점
	서지연 한국기계연구원 대외협력실장	해외 거점
	김태권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글로벌사업화센터 책임연구원	협력 정책
	김지민 한국연구재단 국제연구 협력팀장	협력 기반
	김동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선임연구원	재외 과협
	조영상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인력 교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Busan is good

# 부산수산물

## 꼼꼼하게 검사하고 촘촘하게 감시합니다 안심하고 드세요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15th  
**H.O.T** **페스티벌**  
Health. Origin. Taste Festival

# 영양고추는 언제나 올다!

2023.09.18.(월) ~ 09.20.(수)

서울광장 (서울시청 앞)

